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14호
2023. 7. 7

■ 노후화 심각한 상수도 시설, “지진에 특히 취약”

■ 건설업 외부자금 조달시장 여건 점검

■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173억 달러, 전년비 44% 증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노후화 심각한 상수도 시설, “지진에 특히 취약”

- 정수장 내진설계 미적용 75.9%, 광주, 전북 경년관 30% 넘어 -

■ 수돗물, 다양한 상수 시설을 거쳐 가정에 공급

- 상수도는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음.
 - 물은 일반적으로 취수문·취수관·취수탑을 사용하여 취수하고 취수시설에서 정수장까지를 도수시설, 정수장에서 배수장까지를 송수시설, 배수지에서부터는 배수시설을 통해 공급함.
 - 도수시설의 경우 취수시설에서 정수장까지 원수를 끌어들이는 관로를 도수관로라 하는데, 계획 도수량은 계획 취수량을 기준으로 함.
 - 정수시설은 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수장에서 수질기준에 맞게 정화하는 시설임. 일반적으로 정수 방법에는 침전, 여과, 살균, 소독이 있으나, 수질에 따라 공정을 추가도 함.
 - 송수시설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의 관을 뜻하고, 계획 송수량은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이 기준임.
 - 배수시설은 정수를 급수구역 내의 수요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며, 급수구역 내의 설치된 배수관에 소요 수압으로 필요한 수량을 보내는 시설임.

<그림 1> 수돗물 생산과정



자료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노후화 36.4%, 내진설계 미적용 75.9%

- 준공 또는 개량 이후 30년 이상 된 노후 정수장은 전체 정수장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177개소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은 4개의 정수장 모두 30년 이상 노후화됨.

<표 1> 정수장 현황(2021)

수도사업자	정수장	준공 및 개량 이후 30년 이상		내진설계 미적용		준공 및 개량 이후 30년 이상 및 내진설계 미적용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서울	6	0	0.0%	0	0.0%	0	0.0%
부산	4	4	100.0%	4	100.0%	4	100.0%
대구	5	1	20.0%	4	80.0%	1	20.0%
인천	7	3	42.9%	5	71.4%	3	42.9%
광주	3	1	33.3%	3	100.0%	1	33.3%
대전	3	0	0.0%	2	66.7%	0	0.0%
울산	2	0	0.0%	0	0.0%	0	0.0%
경기	45	18	40.0%	33	73.3%	15	33.3%
강원	73	29	39.7%	58	79.5%	28	38.4%
충북	23	11	47.8%	15	65.2%	10	43.5%
충남	11	5	45.5%	11	100.0%	5	45.5%
전북	18	6	33.3%	11	61.1%	6	33.3%
전남	88	31	35.2%	76	86.4%	25	28.4%
경북	86	31	36.0%	72	83.7%	29	33.7%
경남	56	19	33.9%	44	78.6%	19	33.9%
제주	18	4	22.2%	14	77.8%	4	22.2%
수자원공사	38	14	36.8%	17	44.7%	9	23.7%
합계	486	177	36.4%	369	75.9%	159	32.7%

주 : 1) 2023년을 기준으로 준공 및 개량 이후 30년 이상 된 정수장을 집계함.

2) 광역시설 및 준공/개량 연도가 없는 정수장은 배제함.

3) 도지역은 시, 군에서 관리함.

4) 운휴시설도 포함하여 집계함.

자료 : 환경부, 2021 상수도통계(2022).

- 지진 발생빈도가 증가¹⁾하는 국내 상황에서 정수장의 내진설계 적용은 24.1%에 불과하여 지진 발생에 취약한 상황임.

– 부산, 광주, 충남의 정수장은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 피해에 매우 취약함.

- 준공 및 개량 이후 30년 이상,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정수장은 159개소, 32.7%에 달함.

–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정수장의 절반가량이 노후화되어 지진에 더욱 취약한 상황임.

1) 기상청 날씨누리 자료에 따르면 78년 이후 지진 빈도수는 우상향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에는 252회가 발생됨.

■ 공업용 정수장 2곳 중 1곳 노후화

- 공업용 정수시설 중 16개소는 준공 또는 개량 이후 30년 이상 되었으며, 전체 정수장의 48.5%로 2개 중 1개는 노후화됨.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업용 정수시설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정수시설보다 더 많이 노후화됨.
- 공업용 정수시설의 내진설계 적용은 36.4%에 불과하여 일반정수장과 마찬가지로 지진에 취약하여 이들 시설의 붕괴 시 산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전망이다.
 - 지자체 관리시설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나, 수자원공사의 시설도 50.0%로 적지 않음.
- 준공 및 개량 이후 30년 이상, 내진설계가 미적용 공업용 정수장은 12개소, 36.4%에 달하고 있음.
 - 지자체 관리시설은 10개소, 47.6%에 달하며, 수자원공사 관리시설은 2개소 16.7% 수준임.

<표 2> 공업용 정수시설 현황(2021)

수도사업자	정수장	준공 및 개량 이후 30년 이상		내진설계 미적용		준공 및 개량 이후 30년 이상 및 내진설계 미적용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지자체	21	14	66.7%	15	71.4%	10	47.6%
수자원공사	12	2	16.7%	6	50.0%	2	16.7%
합계	33	16	48.5%	21	63.6%	12	36.4%

주 : 1) 2023년 기준 준공 및 개량 이후 30년 이상 된 정수장을 집계함.

2) 광역시설 및 준공/개량 연도가 없는 정수장은 배제함.

3) 도지역은 시, 군에서 관리함.

자료 : 환경부, 2021 상수도통계(2022).

■ 광주, 전북 상수관로²⁾ 내구연한 지난 경년관 비중 30% 넘어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수관로는 23만 3,701km에 달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경년관은 4만 6,520km로 전체 상수관로의 19.9%를 차지하고 있음.
 -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상수관로 중 경년관은 20.0%에 달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경년관은 16.0%임.
 - 특히, 광주(37.3%)와 전북(31.9%)은 30% 이상의 높은 경년관 비중을 보이고 있음.

2) 도수관(수원지에서 취수하여 정수장으로 보내는 관), 송수관(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는 관), 배수관(배수지나 배수탑 등으로부터 급수 구역 내에 배수할 때 사용하는 관), 급수관(배수 소관이나 급수 장치에서 도수하기 위해 택지나 가옥 내에 인입되는 관) 합계임.

<표 3> 상수관로 현황(2021)

수도사업자	도수관 (m)	송수관 (m)	배수관 (m)	급수관 (m)	합계 (m)	경년관 연장 (m)	경년관 비율 (%)	비내식성 관로 비율 (%)
전체	3,616,661	12,852,120	135,154,191	82,078,177	233,701,149	46,520,438	19.9	5.4
지자체	1,738,809	8,972,296	135,154,191	82,078,177	227,943,473	45,601,690	20.0	5.5
서울	84,111	516,002	9,717,997	3,071,410	13,389,520	3,412,681	25.5	0.5
부산	88,379	472,564	3,691,744	4,253,477	8,506,164	1,487,202	17.5	0.0
대구	39,767	376,292	5,723,671	1,788,146	7,927,876	1,675,482	21.1	0.7
인천	77,724	254,363	4,486,208	2,437,827	7,256,122	1,358,042	18.7	2.4
광주	52,486	61,345	3,107,345	824,876	4,046,052	1,508,384	37.3	5.8
대전	23,115	0	2,706,373	1,293,969	4,023,457	873,094	21.7	0.2
울산	1,872	170,417	1,878,839	1,543,137	3,594,265	548,987	15.3	0.4
세종	0	71,657	889,774	296,686	1,258,117	91,486	7.3	0.1
경기	247,972	1,464,271	24,080,620	13,269,645	39,062,508	4,741,892	12.1	5.0
강원	243,451	675,904	7,323,251	5,568,373	13,810,979	3,502,363	25.4	6.6
충북	70,909	454,346	7,043,534	3,509,773	11,078,562	1,776,880	16.0	13.5
충남	55,675	648,265	11,686,745	6,547,164	18,937,849	3,025,051	16.0	5.0
전북	59,280	463,865	11,354,744	6,858,298	18,736,187	5,971,348	31.9	8.8
전남	230,392	687,761	12,835,981	7,708,621	21,462,755	3,308,785	15.4	10.0
경북	264,707	1,325,599	14,835,543	11,776,656	28,202,505	6,529,190	23.2	7.3
경남	123,446	828,184	11,836,655	8,052,383	20,840,668	4,895,117	23.5	4.0
제주	75,523	501,461	1,955,167	3,277,736	5,809,887	895,706	15.4	1.6
수자원공사	1,877,852	3,879,824	0	0	5,757,676	918,748	16.0	0.6

자료 : 환경부, 2021 상수도통계(2022).

■ 정수처리시설의 조속한 내진보강 및 개선 필요

-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30년 이상 된 정수장 30%가 넘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시설은 70% 넘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상황임.
 - 과거 포항 지진(2017, 11, 15)으로 양덕정수장은 지진 피해를 겪으면서 복구에 224억 원이 소요됨.
- 2009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가 「건축법」에 도입되었음에도 많은 정수처리시설 여전히 내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속한 보강 및 교체가 필요함.
- 한편, 상수관의 파손은 싱크홀 발생으로 연결되는 만큼 상수관 중 내용연한이 지난 경년관은 빠른 교체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성 활용과 시민 안전 도모가 필요함.
 - 특히, 광주(37.3%), 전북(31.9%)은 경년관의 비중이 높아 조속한 대응이 필요함.

엄근용(연구위원-kyeom@cerik.re.kr)

건설업 외부자금 조달시장 여건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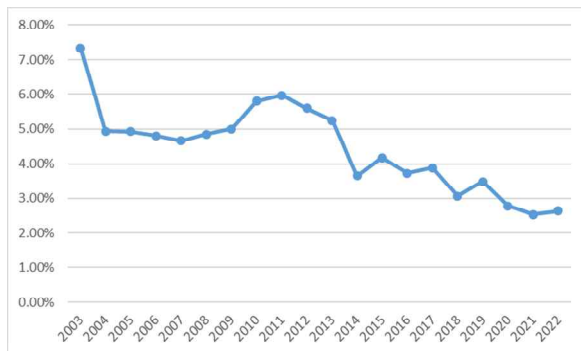
- 주식시장, 채권시장, 간접 금융시장 조달 여건 어려움 지속 -

■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서의 건설업 자금조달 여전히 어려운 상황³⁾

-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주식시장에서 건설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타 산업 대비 부정적인 상황임.
 - 건설업 상장기업 수 비중 감소(코스피 기준 2011년 5.97% → 2022년 2.63%), 건설업 시가총액 비중 감소(코스피 기준 2013년 1월 2.27% → 2023년 2월 0.8%), 최근 건설 주가지수 큰 폭 하락(코스피 기준 2021년 6월 138.57 → 2023년 2월 75.37) 등 전체 주식시장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외형적 규모 비중이 줄어듦.
 - 성과 측면에서도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익률(2022년 코스피 건설 수익률 -3.11%, 제조 -1.98)을 거두었으며, 변동성은 높게 나타남(과거 1년 일별 주가지수 변동성 코스피 건설 0.32, 제조 0.19).
 - 이 밖에도 주식 저평가(2021년 코스피 건설 PBR 0.72, 제조 1.35), 낮은 배당 성향(2021년 건설 12.32%, 제조 25.68%) 등이 관찰되어 주식시장에서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 KOSPI 건설 상장주식 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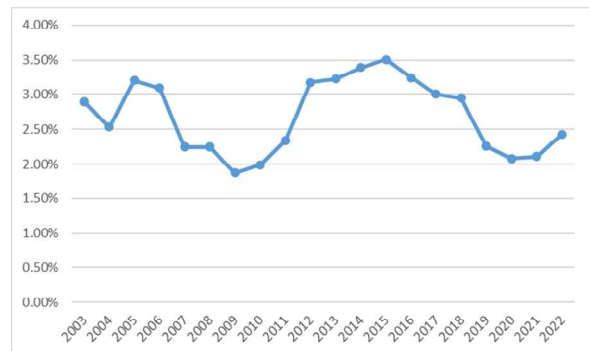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e나라지표/한국거래소.

〈그림 2〉 KOSDAQ 건설 상장주식 수 비중

(단위 : %)



자료 : e나라지표/한국거래소.

3) 본 고는 본원의 건설이슈포커스 “2023 건설업 외부자금 조달시장 여건점검”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함.

- 주식시장에서 건설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운 것은 건설기업의 경영 성과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경기변동, 정책 변화 등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임.
 - 외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건설기업 특성상 경영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크므로 주식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건설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며 이러한 상황이 주식시장에도 반영됨.

■ 채권시장을 통한 건설업 자금조달 2022년에 큰 폭으로 감소

- 채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2022년 말 채권시장 신용경색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2022년 하반기에 기준금리와 함께 회사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무보증3년 회사채 BBB- 기준 2021년 8월 8.17% → 2022년 11월 11.33%)하여 채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짐.
 -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전체 회사채 발행이 감소(2021년 104조 원 → 2022년 76.7조 원)하였고, 채권지수도 급락함(2022년 1월 1일 186.62 → 10월 21일 168.16).
 - 2022년 10월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대두되고 신용경색 문제가 발생하면서 특히 건설기업의 채권 발행이 어려워짐. 그 결과 2022년 건설업 채권 발행은 전년 대비 약 44% 감소함(2021년 3.4조 원 → 2022년 1.9조 원).
- 당분간 금리 및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과 건설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도 있으므로 건설기업의 채권시장 자금조달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지원 덕분에 채권시장에서의 위험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으나, PF 관련 부실채권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금리 정책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재무 불확실성이 큰 몇몇 건설기업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높은 조달 비용으로 인해 간접금융시장에서의 조달 여건도 어려운 상황

- 건설기업의 자금조달은 간접금융시장을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짐.
 - 건설기업 총자산에서 장·단기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20.6%로, 같은 해 회사채

비중이 1.8%인 것과 비교하면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편임.

- 2022년에는 건설업 대출금 증가세가 가팔랐는데(2021년 4분기 55조 원 → 2022년 4분기 67.8조 원), 채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건설기업의 대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임.

● 간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여건 역시 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어려운 상황임.

- 최근 높은 금리로 인해 간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졌으며(예금은행 대출금리 2021년 2.88% → 2022년 4.29%), 건설업 차입금평균이자율은 금리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2021년 건설업 차입금평균이자율 3.36%, 제조업 2.74%) 간접금융시장에서 건설기업의 어려운 자금조달 여건을 보여줌.

●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간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시 큰 비용이 수반될 것임.

■ 어려운 자금조달 여건 지속 예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 모색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출렁였던 외부자금 조달시장 여건을 분석해본 결과,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2022년 채권시장 신용경색 문제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 채권시장,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건설업 외부자금 조달 여건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당분간 고금리로 인해 높은 자금조달 비용이 유지되며 어려운 자금조달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못했고, 건설경기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기업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우려도 남아있음.

● 최근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인해 건설기업 수익성이 감소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효율적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 전략 마련이 요구됨.

- 2022년부터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해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건설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는데, 유동성 부족은 기업 파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동성관리를 위한 효율적 자금조달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향후 경제 변화 등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 등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자금 조달시장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173억 달러, 전년비 4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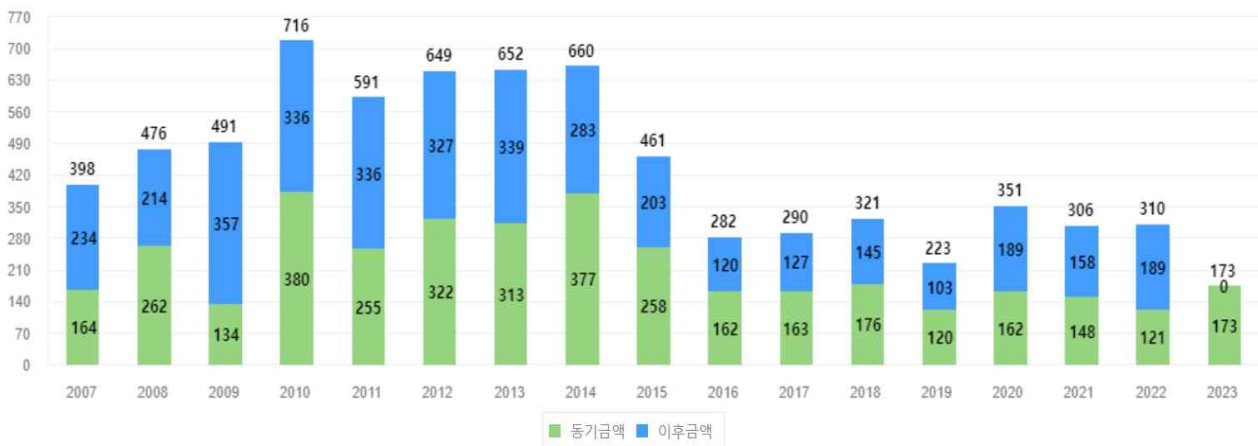
– 경기침체, 지정학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수주 실적 증가 가능성 커져 –

2023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전년보다 52억 달러 증가한 173억 달러 기록

- 지난해 상반기 120.4억 달러를 기록한 해외건설 수주가 올해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증가하며 2018년(176억 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6월 27일 기준 88억 달러를 기록했던 해외건설 수주는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5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 등에 힘입어 막판 반전을 이뤄냄.
 - 수주 건수로는 29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 증가했으며, 시공 건수도 2,477건으로 17% 증가함.
 - 진출 국가 수도 81개 국가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 증가했지만, 진출 업체 수는 231개 사로 8% 하락함.

<그림 1>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 지역별로는 지난해 67.3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55.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던 아시아는 40.4억 달러로 23.4%를 차지하는 데 그침.
 - 반면에, 지난해 28억 달러(전체 수주의 23.3%)를 기록했던 중동은 66.2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38.3%를 차지하며 지역별 수주액 1위를 기록함.

- 또한, 북미 및 태평양 지역의 수주도 국내 기업의 북미지역 제조공장 투자 확대에 힘입어 50.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주의 29.3%를 차지함.
-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의 수주는 각각 6.5억 달러와 5.4억 달러를 기록하며 3.8%와 3.1%를 차지하는 데 그침. 유럽은 3.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4억 달러 감소함.
- 중동과 북미·태평양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수주 비중이 38.3%, 23.4%, 29.3%로 균형 잡힌 구조를 보이며 전체 수주의 91%를 차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1> 2021~2023년 상반기 지역별 수주 현황

구분	'21.1.1~'21.6.30		'22.1.1~'22.6.30		'23.1.1~'23.6.30	
	금액(억 달러)	비중(%)	금액(억 달러)	비중(%)	금액(억 달러)	비중(%)
중 동	41.2	28	28	23.3	66.2	38.3
아시아	64.6	43.8	67.3	55.9	40.4	23.4
북미·태평양	15.1	10.2	1.8	1.5	50.6	29.3
유 럽	20	13.6	19.1	15.9	3.7	2.1
아프리카	1.3	0.9	2.3	1.9	6.5	3.8
중남미	5.2	3.5	1.8	1.5	5.4	3.1
합계	147.4	100	120.3	100.0	172.8	100.0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공종별로 플랜트와 건축 부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폭 증가했지만, 토목 부문은 급감함.
 - 지난해 41.4억 달러를 기록했던 플랜트 부문은 80.9억 달러로 동기 대비 39.5억 달러 증가하며 전체 수주의 46.8%를 차지함.
 - 건축 부문도 지난해 30.5억 달러와 비교해 33.4억 달러 증가한 63.9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37%를 차지하며 올해 상반기 수주 성장을 견인함.
 - 반면에, 지난해 28.1억 달러를 기록했던 토목은 8.4억 달러에 그치며 전체 수주의 4.9%를 차지함.

<표 2> 2021~2023년 상반기 공종별 수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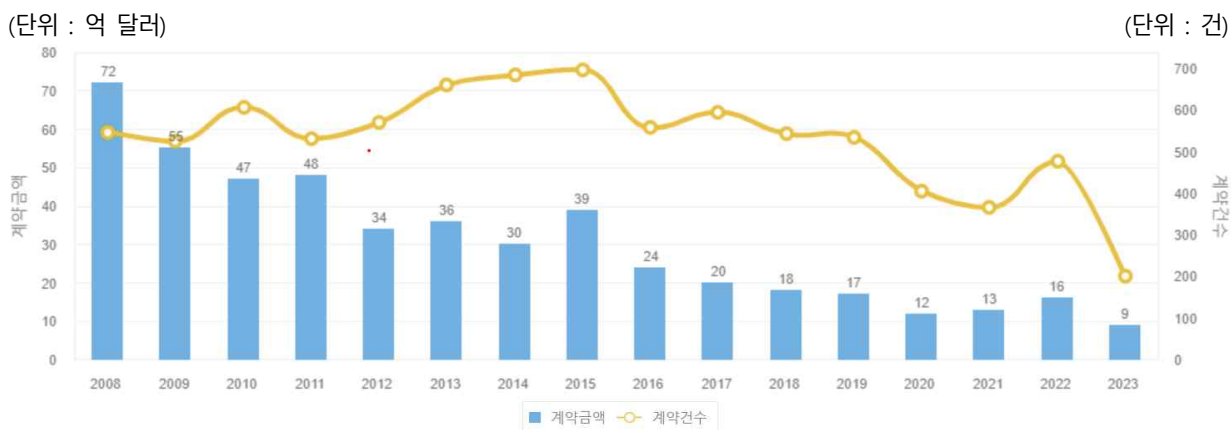
구분	'21.1.1~'21.6.30		'22.1.1~'22.6.30		'23.1.1~'23.6.30	
	금액(억 달러)	비중(%)	금액(억 달러)	비중(%)	금액(억 달러)	비중(%)
토 목	28.1	23.4	28.1	23.4	8.4	4.9
건 축	19.1	15.9	30.5	25.4	63.9	37.0
플랜트	88.6	73.6	41.4	34.4	80.9	46.8
전 기	3.7	3.1	4.4	3.7	13.4	7.8
통 신	0.2	0.2	0.7	0.6	0.1	0.1
용 역	7.7	6.4	15.2	12.6	6.1	3.5
합계	147.4	122.5	120.3	100.0	172.8	100.0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중소건설기업의 해외 수주 규모,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 증가한 9.7억 달러 기록

- 2023년 상반기 중소건설기업은 63개 국가에서 204건의 사업을 수주해 9.7억 달러의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는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의 5.6% 수준임.
- 중소건설기업의 해외수주는 2020년 1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2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확대되어야 함.

<그림 2> 중소건설기업 해외건설 수주 추이



자료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서 3.1억 달러 유럽과 중동에서 각각 3.3억 달러와 2억 달러를 기록함. 공종별로는 플랜트 부문이 3.7억 달러, 전기 2.7억 달러, 건축 1.9억 달러, 용역과 토목 부문이 0.8억 달러와 0.5억 달러를 기록함.

<표 3> 2023년 상반기 중소건설기업의 지역별(위) 및 공종별(아래) 수주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분	합계	중동	아시아	태평양,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2023년도 현재	973,863	206,448	314,693	75,695	334,586	36,804	5,637
2022년도 전체	1,599,204	467,707	498,242	66,552	352,482	101,696	112,525
2022년도 동기	952,496	211,677	309,199	33,909	232,893	74,110	9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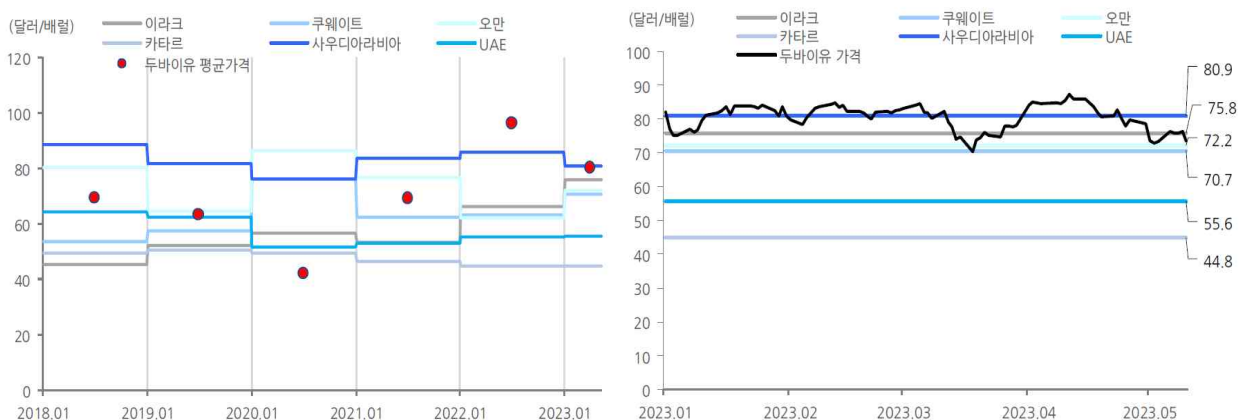
구분	합계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
2023년도 현재	973,863	51,926	197,423	366,079	267,560	12,137	78,738
2022년도 전체	1,599,204	97,385	210,403	564,499	494,779	32,584	199,554
2022년도 동기	952,496	55,329	154,146	316,901	292,926	15,550	117,644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23년 하반기 해외건설 시장, 긍정적 시각 유지는 필요하나 변동성 확대에 주의

- 2023년 하반기 해외건설 시장은 중동 산유국 중심의 발주 확대라는 긍정적 요인과 함께 경기침체 우려 증가, 지정학 불안 등의 위협요인이 혼재되어 있음.
- 배럴당 70달러대 수준의 국제유가가 2년 이상 이어지면서 MENA 지역의 석유가스 부문의 발주가 증가하는 상황임. 5월 기준, 지난해 연간 발주 규모(250억 달러)의 48%인 120억 달러가 발주됨.
- 2023년 MENA 지역 건설시장은 사우디가 견인하고 있는데 4월까지 사우디가 MENA 지역 전체 발주의 47%를 차지함. 향후 네옴시티를 포함해 발주 예정인 금액만 6,876억 달러임.
- 중동 건설시장의 양호한 발주 환경은 2018년부터 주요 국가의 재정균형 유가가 두바이유 평균가격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장기화하지만 않는다면 최근의 유가 하락 추세도 발주 환경을 뒤흔들 요인은 아님.

<그림 3> 중동 주요 국가의 재정균형 유가 추이(좌)와 2023년 재정균형 유가와 실제 유가 추이(우)



자료 : 한화증권.

- 경기침체에 대한 긍정과 부정 시각이 혼재된 세계 경제의 전개 방향에 따라 향후 해외건설시장의 발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 연준은 2022년 3월 이후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올해 2번의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지만 미국의 경기침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존재함. 반면, 유럽 및 주요국가에서는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세계 경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며, 하반기 해외건설 시장에서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MENA 건설시장의 발주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